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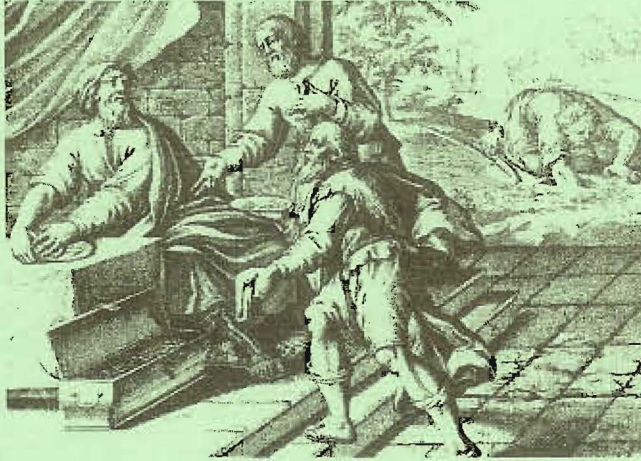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위령 성월, 연중 제33주일
제31권 51호(가해) 2011-11-13

[묵사]



탈렌트의 비유 <18c, 작자미상, 목판화, 라틴어 성경>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는
각자 받은 은총을 충실하게 활용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받은 탈렌트를 이용하여
주님의 재산을 늘린 종들은 칭찬을 받고
받은 탈렌트를 가만히 땅에 숨겨둔 종은
가진 것마저 많이 가진 이에게 빼앗깁니다.

성실한 종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맡게 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탈렌트는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그들이 받을 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성실함과 충실성 자체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의 관리자들인 저희들은
주님께 모든 평계를 돌렸던 쓸모없는 종처럼
'내가 받은 탈렌트는 이것밖에 안될까!'
'주님은 나에게 너무 힘든 짐을 주셨다.'고
모든 것을 주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때
저희가 이미 받은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재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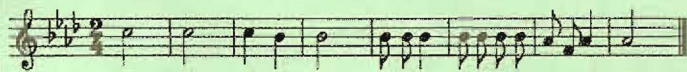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이임순 마리아, 서병관 안토니오
	(생) 김병조 마르띠노, 임진희 한나, 에블린 페리아, 성영님 엘리사벳
주 일 낮 미사	(연) 오진 베드로, 주정애 & 김제철, 박부원, 고준희 제임스, 신태동 요아킴, 임익찬 안토니오, 박기묘 마리아, 이진심 데레사, 김지형 시릴로, 최부금 로사, 강중익 & 양영순, 최병임 & 방영자, 신헌태, 돌아가신 레지오단원들
	(생) 김기정 루시아 & 김옥보 안나, 김효임 골롬바, 이용식 베드로 & 이복임 엘리사벳, 정열모 미카엘 가정, 이형삼 요셉 & 이혜숙 요새파나, 정혜경 카타리나, 하늘의 문 pr. 남가주남성(영어) 제34차 꾸르실료수강자들, 문밖티스타 수녀,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잠언(Proverbs) 31,10-13,19-20,30-31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 복 하 여 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사 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는 네 손으로 벌어들여이니,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희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제 2독서 테살로니카 1서(1 Thessalonians) 5,1-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5,14-30

영성제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33	347	208
봉헌	391	264	269
성체	Shout to the Lord	301	309
파견	394	243	21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피조물을 관찰함으로써 창조주를 알아
뵈도록 초대합니다(지혜 13,5; 로마 1,19-20 참조). 그리스
도교 사상 전통은 말씀의 교향곡에서 바로 이 핵심 요소를 깊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나벤투라 성인은 그리스
교부들의 위대한 전통에 따라 창조의 모든 가능성이 로
고스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을 선포하
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은 이를 요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
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한 1,3 참
조)보존하시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에 관한 영원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신다.”

인간의 창조

9)이렇게 실재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창조물(creatura
Verbi)로 생겨났고, 모든 것은 말씀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
았습니다. 창조는 하느님과 그분 창조물 사이의 사랑의 역사
가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모든 것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사라는 관
점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창조안에서 인간이 차지하
는 유일하고 독특한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들을, 곧 자신의 몸의 가치를, 그리고 이성과 자유
와 양심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 또한 우리는 철학 전통이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보
게 됩니다. 실상 모든 인간은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느
끼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는 내적 부르심을” 그리고 따라서 악
을 피하라는 내적 부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
스 성인이 말하듯이, 자연법의 모든 규정들은 이 원칙을 기초
로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쓰여 있는’(로마 2,15; 7,23 참조) 이 법에 따
라 살아야 한다는 요청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새로운 법을, 복음의 법을 주
십니다. 이 법은 자연법을 수용하고 탁월하게 완성하는 법으
로서, 바오로 성인이 말하듯이 “원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하게”(로마7,18)하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시킵니다. 또한 그것은 은총을통하여 인간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계속>

내게 아름다움은 그렇게 아릿한 그리움의 색채로 다가왔다.

프랑스의 소설가는 죽음에 대해 “우리가 인생을 통해 찾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이것뿐일지도 모른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는 한량없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무성한 잎을 떨구어 내고서야 비로소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겨울 나무처럼 말입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 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면 놀이에 정신이 없었던 날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죽음을 통해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고 살아갈 날들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 보는 시간이 위령성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탈렌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종들을 불러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는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주인은 종들과 셈을 합니다. 다섯 탈렌트로 다섯 탈렌트를, 두 탈렌트로 두 탈렌트를 더 번 종은 칭찬받지만 한 탈렌트를 그대로 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 버리고 맙니다. 하느님 나라는 자신의 몫에 충실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삶이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싹틔웁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아래를 보지 못하고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만이 싹트고, 위를 보지 못하고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오만이 자리하며, 밖에만 관심을 두다 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고요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전에 심리공부를 할 때 담당 교수님은 제게 우울증같은 정신 질환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유는 자만심이 높아서라고... 자만심은 자존심이나 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도를 뜻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반듯이 좋은 조건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란 주어진 조건이나 위치가 아니라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북한산 너머로 저녁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굴뚝에 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황홀한 고백처럼 들리던 그 시간, 홀로 남겨진 한 아이는 그렇게 지는 노을을 한참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윈 탓이었지만 그 홀로됨이 “아름다운이란 단지 고운 것이나 예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련함이고 아릿함”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애절하고 아릿한 그리움의 색채를 띠고 다가오듯이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아름다운 빛깔로 자리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한 충실성을 담보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삶이 고달픔의 연속이고 힘겨움에 숨이 막히는 형국일지라도 아름다움이 아련한 그리움의 색채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고유한 삶의 색깔이야말로 그분을 마주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충실성이 될 테니 말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임정빈 보스코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11월 위령 성월

- ◆ 그리스도왕 대축일 : 20일 주일
- ◆ 대림 제1주일 : 27일 주일
- ◆ 제30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일시 : 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주례 : 알렉스 살라자르 주교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통비치)
 - 2부행사 : 각 성당대향 "우리 신부님도 가수다."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성 가브리엘 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제2회 본당 신부님배 각 단체별 족구대회 남·여 2팀 우승

지난 주일 열린 제2회 본당신부님배 각 단체별 족구대회에 총 10개팀이 참가, 남/여 각각 두팀이 공동우승했습니다.

 - 남자우승 : 대건회(우승 트로피 only)
 - 여자우승 : 주일학교교사회(상금\$150, 우승트로피)
 - 경기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 남가주남성(영어) 제34차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17일(목)~20일(주일)
 - 장소 : 포모나 꾸르실료 하우스
 - 본당수강자 3명 : 김병록 요셉, 김낙기 바오로, 황선홍 그레고리오
 -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문의 : 율트레아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 대림환 만들기
 - 일시 : 20일(주일) 낮미사 후 오후 1시

- 장소 : 친교장
- 재료비 : \$20(선착순 20명)
- 문의 : 오창애 안나 제대회장 ☎(310)974-2857
- ◆ 예비자 교리 시작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지난 3일 첫교리가 시작됐으나 예비자를 계속 모집합니다.
 - 세례식 예정 : 2012년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2012년 1월16일(월)~19일(목) 3박4일
 - 경비 : \$1,000(1인당 하루팁 \$10 별도)
 - 인원 : 선착순 40~50명
 - 신청 : 11월20일(주일)까지 한 주일 연장, 신청금 \$100
 - 문의 : 금영도 배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 2011년 마지막 유아세례
 - 일시 : 11월19일(토) 오후 6시(10분전까지 모아세요.)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 세례 신청서 : 오늘 주일(13일)까지 제출(사무실에 비치, 12월세례식 없습니다.)
- ◆ 대림특강
 - 일시 : 대림절을 맞아 제1주일(27일)의 토요일전미사 / 아침미사 / 학생미사(한국어) / 낮미사 등 네차례 미사강론 중에 특강하십니다.
 - 강사 : 이요한 신부(LA 성 그레고리 성당)
- ◆ 토요일특전(청년미사) 청년밴드부 모집
 - 자격 : 신앙 깊은 청년 반주자(악기, 보컬)
 - 문의:곽수민 히메리오 청년회장 ☎(310)944-457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13일(주일) : P.V. 2반(육개장 \$3)
- 11월20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선제
	김성일	김양금	김일선	김정웅	김종렬	김준호
	김철민	김현숙	남명자	노새미	노천수	노혜숙
	민기남	민순선	박씨니	박정자	박종열	방정복
	변복순	송기철	송재훈	엄지선	오신재	오일순
	유철희	이근모	이명선	이명자	이상석	이숙화
	이영석	이은록	이인두	이태옥	장영우	전정일
	정규숙	정지숙	지경수	한금순	황학수	
	합계 : \$4,310					
미사헌금 : \$2,574	2차헌금 : \$895					
성전헌금	구자운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선제
	김성일	김양금	김일선	김준호	김철민	김현숙
	남명자	노새미	노천수	노혜숙	민기남	민순선
	박씨니	박종열	변복순	엄지선	유철희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숙화	이은록	장영우	전정일
	정규숙	정지숙	지경수	한금순		
	합계 : \$2,550					
감사헌금 : 이영호						

공지사항

- ◆ 11월부터 매달 첫째주일 학생미사 1.5세 한인신부님 집전
 - 사제 : Fr. 리처드 선우(소속본당 St. Lawrence)
 - 셋째주일은 종전대로 St.마가렛매리 본당 신부님 오심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 대림 제1주일부터 영어미사(학생미사) 경본이 바뀝니다.
오는 11월27일 대림 제1주일부터 북미주 모든 가톨릭교회에서는 개정판 영어미사경본을 사용합니다. 한영 매일미사 11월호는 이미 바뀐 영어미사경본(주일미사)으로 출판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소식

- ◆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침실홍실' 제7차 만남의 장
 - 일시 : 오늘 주일(13일) 오후 5시 *장소: LA 옥스포드호텔
 - 신청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chungsilhongsil@gmail.com
- ◆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 기념미사 일정 연기
 - 일시 : 11월19일(토)로 예정됐었으나 무기한 연기함
 - 성당장소 : 2035 Otterbein Av. Rowland Heights, CA 91748
 - 이번에 새로 축성되는 성 가브리엘 성당은 기존의 성 크리스토퍼성당과 성 마리아성당이 합병한 공동체입니다.
 - 주임신부: 한상만 토마스
 - 문의: 사목회장 이항 요셉 ☎(626)965-7553
- ◆ 신상옥 복음성가 가수 콘서트(작은예수회 설립 10주년기념)
 - 일시 : 11월19일(토) 오후 8시
 - 장소 : 성 아그네스 성당(LA 버몬트+ 아담스)
 - 감사미사 : 오후 6시30분, 박성구 신부 · 최대제 신부 집전
 - 연락처: 작은예수회 LA장애인시설
운영이사 노장오 요셉 ☎(213)387-3301
-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7일(토) 오후 6시
 - 장소 :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5000 Clack Av. Lakewood, CA 90721)
 - 내용 : 추억이 있는 본당별 발표 경연대회, 경품과 행사품집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로 &
정병옥 올리아 ☎(310)780-9055
- ◆ 이냐시오 성인 영신수련 4박5일 침묵피정
 - 일시 : 2012년 1월11일(수)~15일(주일)
 - 장소 Marywood 피정센터(오렌지카운티)
 - 피정지도 : 이인주 신부(예수회)
 - 참가비 : \$380(독방), 선착순 20명
 - 주최 : 미서부지역CLC(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배태임 안나 961-0942 11/11(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539-3377 11/5(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메스 989-0366	김충섭 마틴 533-1435 11/5(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심재은 클레멘스 213-760-7766 11/12(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순자 안젤라 201-320-9930 11/10(목)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남구역 합동 반모임 11/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남구역 합동 반모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남구역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위너 스프링 온천 895-8624 11/19-20(토~일)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김금자 데레사 539-9526 11/12(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77-0727 11/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866-8778 11/19(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문중 바오로 796-6763 11/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박진숙 엘리사벳 562-860-8499 11/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숨겨진 만두 한알

나는 어린 시절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뭐 하나라도 나를 먹이고 챙겨주시느라 자신의 몫은 늘 뒷전이셨다. 간식이든 반찬이든 혹시라도 내가 “더 줘!” 한 마디를 할까 봐 당신 몫은 내 배가 찰 때까지 안 드시고 기다리시곤 했다. 할머니는 독실한 신자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을 거르는 일이 결코 없으셨다. 그렇게나 나를 끔찍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셨던 할머니지만 주일미사만큼은 내가 아무리 청얼대고 할머니 손길을 졸라도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으셨다. 이런 나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날에는 꼭 한마디 하셨다.

“이 할머니가 하느님 뵈러 갔다 오는 게 내 새끼한테도 좋지.”

매달리는 내 손을 떼어놓고 성당에 가신 날에는 동대문시장에 들러 만두를 사 들고 오셨다. 만두꾸러미를 본 나는 환호를 지르며 마당을 뛰어 돌고 그 사이 할머니는 초간장을 내오셨다. 정신없이 만두를 먹다 “할머니도 하나 먹어”하고 내밀면 할머니는 “그래”하고 만두를 받으셨다가, 내가 게 눈 감추듯 만두 다섯 개를 먹어 치우고 나면 먹는 시늉을 하느라 잇자국만 살짝 나 있는 아까 그 만두를 뒷집 진 손에서 내미셨다. “할미는 먹기 싫다. 내새끼 더 먹어라.”

나는 어른이 되어서야 성당을 찾기 시작했다. 어릴 적에 성당에 데리고 가면 집에 가자 청얼대는 탓에 주일이면 집에 남겨졌던 내가 제 발로 성당을 찾아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나도 마땅한 답이 없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고, 세례받기를 차일피일 미루면 웬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내 머리에 심어주신 생각 때문에 그랬었나 싶다. 하지만 그렇게 영세를 받고도 한참 동안 냉담을 했다. 그리고 그 냉담 중에 할머니는 하느님 곁으로 가셨다.

할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도 난 성당을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 그러다 6년 전쯤의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다. “이번 주일엔 성당 가야겠다!” 나도 모르게 이한마디가 튀어나왔다. 그 주일, 정말 오랜만에 성당을 찾은 나는 미사가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환희와 즐거움에 빠졌다. 그 뒤엔 열심히 성당을 다니게 되었다. 그날의 일은 이유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날 일을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당신이 끔찍이 아껴셨던 손자에게 은총을

내려주심사고 하느님께 조르신 것 같다. 뒷집 진 손에 들고 계셨던 그 만두 한 알을 내 새끼에게 내밀어 주시듯, 할머니는 내 머릿속에 하느님 생각을 심어 주신 것이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했었다. 내가 알 길은 없지만 “내가 하느님 곁에 가면 언젠가 그 만두 한 알 내 새끼 손에 쥐여줄게.” 이러셨을 것 같다. 나는 할머니께서 영원한 삶을 하느님 곁에서 보내고 계심을 믿는다. 할머니의 연미사를 봉헌하거나 산소를 찾으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할머니! 나 이제 배불러. 나도 하느님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하느님 곁에서 그 사랑의 만두 드세요.”

◆박용만 실바노 / (주)두산 회장

이건 알아주세요!

성당을 다니다 교회(개신교)를 다니면 ‘냉담자’이지요? 그런데 성당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동생과 친구를 보면 하느님을 깨닫고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이라 싶네요.

질문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부분을 숙지하지 않은 결과임을 생각하니 고마웠습니다. 교회의 냉담자 분류는 행정상의 조치이며 교회 살림과 교우들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냉담자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를 등쳐서 믿음의 행보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분리된 교회의 모습이 그분 마음을 아프게 후벼대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 교회는 일치할 날을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 영역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신교에는 그분께 인호를 받은 사제가 없는 까닭에 성찬의 전례가 거행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워주신 가톨릭교회의 전례 전통이 과감히 생략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취향에 따라서 고르는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더 재밌고 신나고 내내 흥겨운 것이 믿음의 척도일 수 없습니다. 가톨릭교회의 풍요하고 귀한 진리의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도약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세우신 정통교회의 은총을 잃어버린 손해를 깨닫게 하는 참 일꾼이 되십시오.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